

## 권영렬 고문 대종회에 '年' 1000만원씩 장학금 기증

### 능동장학회 권정달 이사장직 끝내 고수

권영렬 고문은 대종회에 년 1000만원씩 장학금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권영렬 고문이 능동장학회 장학금으로 2억 상당의 오피스텔과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기증하려 했으나(분보 10월 1일자) 권정달 이사장이 능동장학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억 상당의 오피스텔 기증은 일단 유보하고

별도로 장학금을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능동장학회는 대종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능동장학회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기증은 부득이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능동장학회의 역대 이사장들의 재임 현황을 살펴보면 초대 권순영이사장은 1975년**

**부터 1979년까지 재임하였으며, 권태희회장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권이혁회장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재임하였고, 현 권정달이사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재임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9년 4월까지이다.** 또한 대종회 고문단 회의에서나 상임위원 회의에서 대종회 정관에 따라 대종회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논의하고 그 뜻을 전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고 독자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 대종회와 결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권영렬고문이 기증하는 장학금은 지역종친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대종회 회장 명의로 매년 5월 정기총회 시 지급하기로 했다.

## 권영익 수석부회장 종묘대제 아헌관 봉무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11월 4일 10시에서 12시까지 종묘 영녕전(永寧殿)에서 봉행한 종묘추향대제에 아헌관으로 봉무했다. 영녕전 제 6실은 문종과 현덕왕 후 권씨의 위패가 모셔진 신실(神室)이다. 종묘대제(宗廟大祭)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종묘제례는 조선의 국가 사당이며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 부른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 의식에 맞추어 기악(樂), 노래(歌), 춤(舞)을 갖추어 연행하는 종합예술로 악기 연주에 맞추어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열과 행으로 벌려서서 추는 춤인 일무(佾舞)를 춘다. 그 연원은 조선 세종대에 신악(新樂)으로 제정된 보태평과 정대업이 있는데 세종 10년(1464)에 이르러 보태평(保太平) 11곡과 정대업(定大業) 11곡으로 개정되어 처음으로 종묘제례를 연주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보태평은 조선의 역대 선왕들의



학문과 덕망을 기리는 내용으로 영신례, 신관례, 초헌례 때 연주된다. 이날 종묘추향대제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편집부장 권현완

## 司正公 豎碣告由祭(鳳山齋竣工式)

사정공 향일재 권諱壽海 祖先이 재속(齋宿)하실 봉산재 수갈고 유제(준공식)가 10월 29일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재사에서 서울 부산 포함 안동 등 전국에서 오신 유림

과 후손 등 300여 명의 참제원(參祭員)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奉行)됐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수갈고유제는 5백년간 이어진 전통 유림방식대로 진행됐다.



공(文景公諱, 軫)문화에 들어가 일찍부터 經書와 史記를 즐겨 읽으면서 절의불의(節義不義)를 부르짖는 청년시절(青年時節)을 보냈다. 조부(祖父)는 저 유명한 고려 말 문과관사(文科判書, 정3품)이신 松阜公(諱 軫)이다. 그의 조부는 이태조(李太祖)가 조선(朝鮮)을 개국(開國)하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백형(慶山公諱 穀)과 매부 栢竹堂(裴尙志)이 함께 예천 용궁 염송산에 은거 하셨다. 이방원으로부터 환경도 관찰사와 성균관 대사성을 제수를 받고도 관직에 나가시지 않고 후학(後學)을 길렀다. 이런 가력을 뒷받침하듯 司正 공은 청년시절부터 추상열일(秋霜烈日: 늦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여름 더위처럼 뜨겁고 매섭다. 엄격하고

준엄하신 인재를 가리키는 말)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세상 명리(名利)와는 등진 고고한 삶을 사시게 된다. 1456년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경상도 연일평(포항시 대장동 대장산)에 유배되었으며 해배가 된 후에도 세조가 내린 100년간의 금고형에 따라 1466년 하세(下世) 하실 때까지 경상도 연일 땅에서 지내셨다. 배소에 향일재를 짓고 아침마다 단종이 계신 영월을 향해 4배를 올렸는가하면 배소 주변에 향일화(해바라기)를 심어 충절의 마음을 나타내었으며 평생을 단종이 계시는 서쪽 자리를 피해 앉았고 동구 밖을 나가지 않는 불의절의정신(不義節義精神)을 고집스럽게 지키신 분이시다. (權伍信)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부회장 회비>  
 권태호(변호사): 1,000,000원  
 권해택(럭키 포텍스(주) 대표): 1,000,000원  
 권태혁(세일C.C 회장): 1,000,000원

<이사 회비>  
 권영하(영천): 300,000원  
 권대근(수원): 300,000원  
 권오준(강남): 300,000원  
 권이원(대전): 300,000원  
 권중수(영주): 300,000원

<중무위원 회비>  
 권순재(서울): 200,000원  
 권갑현(영주): 200,000원  
 권대승(안동): 200,000원

<헌성금>  
 권영덕(고양): 100,000원  
 권혁규(서울) 추향제 성금: 100,000원  
 권오영(인천) 추향제 성금: 100,000원

총계: 5,400,000원  
 임원들의 회비를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17-0009-7471-41

<정정보도>  
 8월 1일자로 보도된 권혁재 증윤공파 파종 회장을 권영택으로 정정합니다.  
 안동권씨대종회

**社告**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제 461회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권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향사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날씨가 춥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陰 10月 19日 中丁)  
 ○ 장 소: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 참석대상: 고문단, 회장단, 지역종친회장, 이사, 중무위원, 청장년회장단, 부녀회장 등  
 ○ 대종회는 유건 300개 준비  
 ○ 大堂會: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6시  
 - 연락처: 서울 02-2695-2843~4 / 안동 054-854-2256

내년 1월 1일부터 종보가 달라집니다.

● 종보의 제호를 변경합니다.  
 현행 **安東權氏宗報** 변경 **安東權氏宗報**  
 ·독자들의 의견에 따라 종보는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가 꼭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한자를 병기합니다.  
 ·우리 대종회 재정지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종보를 직접 운영(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사 지국장을 선임 운영합니다.  
 ·종보 대금은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합니다.

#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임원명단

권오영 회장

회 장	권오영(35세 북야공파)
고 문	권일수, 권달천, 권영섭, 권희철, 권삼달
수석부회장	권옥술(35세 좌윤공파)
부 회 장	권명호, 권오형, 권응수, 권진건, 권태룡, 권지술, 권오달, 권오명, 권기홍, 권의호, 권오복, 권오현, 권순석, 권영민, 권중목, 권혁진, 권오대
감 사	권오봉, 권해구
사 무 처 장	권혁환
총 무 부 장	권응목
여성부회장	권 기, 권예진, 권옥자
울산청년회	회장 권명달 사무국장 권응목, 총무 권기대
동구종친회	회장 권혁성 사무국장 권원기, 총무 권응목
함월친목회	회장 권오달 총무 권혁환
무룡친목회	회장 권오달 총무 권혁성
원연친목회	회장 권기홍 총무 권중배, 재무 권영배
동 천 친 목 회	회장 권기웅 총무 권명달
태 화 강 친 목 회	회장 권오형 총무 권혁철
개 인 택 시 친 목 회	회장 권해구 총무 권오선
한 가 램 친 목 회	회장 권옥환 총무 권혁규
말 내 친 목 회	회장 권현숙 총무 권영향